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서경열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24:44-53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증인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4/26/26	5/3/26
최은숙	강민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분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실망한 두 제자는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어,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었고, 영으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았기에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자 비로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11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11제자 역시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았기에 입술로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할뿐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방 중심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구원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연 적이 없습니다. 그토록 강박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뚝 서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평안의 반댓말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난 뒤로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나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두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게 닫히 방 안 중심에 우뚝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온 방안을 가득 채워 나의 삶에 진정화 평강과 평화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되신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때 우리는 더이상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물으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지금 그 두려움과 의심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배경이 됨을 아신다면, 내가 왜 두려워하며 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깊은 방향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복 받고 행복하고 남들보다 똑똑하고 잘난 맛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이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